

경북도·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투자 유치

포항 영일만 산단 LFP 양극재 생산설비 구축

5000억 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
연간 5만t 규모 양극재 생산 전망
삼원계 전구체 사업 단계적 추진

포항시와 경북도는 19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5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따이주 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김동환 주식회사 피노 CEO,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4만 5,198.8m² 부지에 ESS 및 전기자동차용 LFP 양극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약 5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 생산 규모는 연간 5만 톤, 에너지 용량 기준 연간 29GWh에 이르며, 투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MOU를 체결했다.

자가 완료되면 25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노와 포스코퓨처엠의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는 당초 삼원계(NCM)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LFP 양극재 소재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향후에는 시장 여건과 수

요에 맞춰 삼원계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포항은 국내 LFP 배터리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삼원계 전구체 사업까지 확대될 경우 삼원계 전구체와 LFP 양극재를 아우르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와 제조업 경기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항을 선택해 대규모 투자

를 결정해 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관계 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과 피노가 투자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가 포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울산시, 복지분야 예산 대폭 확대

돌봄서비스·노인일자리 등 1.8조 투입
김두겸 시장 “체감 가능한 정책 실현”



울산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온둔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일상 돌봄,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울산 거주 외국인 가정의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노인 일자는 전년보다 119억원 늘어난 877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584명에게 제공한다.

김두겸 시장(사진)은 “시민의 삶 전주기를 촘촘히 잇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행정력 집중

해조류 기반 특화산업 구조 전환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산업이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는 산업적 확장에 제약이 있어 이를 돌파하고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군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수산종자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류센터 등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수년간 국고 견의와 공모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또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제품 개발



완도군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조감도. /완도군

과 사업회를 진행 중이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2026년 준공 예정),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설계비 확보)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중심의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설 완공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완도를 해양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 직업계 고교생 36명 공직 합격

경남도교육청 직무중심 교육 성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공직 채용에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3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 인원은 국가직 공무원 10명, 양산·통영·진주·창원·거제 등 11개 시·군 소속 지방직 공무원 16명, 경남 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3명, 교육공무직 7명이다. 공직 전 분야에 직업계고 출신이 고르게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직 합격자는 행정, 세무, 관세,

시설, 기계, 전기, 농업 등 전공과 직무가 정확히 연계된 직렬에서 나왔다. 전공 심화와 직무 중심 교육을 지속해 온 성과로 풀이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합격자도 기술직과 현장 지원 분야 중심으로 선발됐다. 학교에서 쌓은 실무 역량이 공직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경쟁력임을 확인한 셈이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직업 교육 기반 공직 진출 모델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공공 분야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양군, 농번기 인력난 해소 팔 걷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영양군은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발한다.

이번 현지 선발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베트남 다낭시 화피엔면에서 진행되며, 3~4월 도입 예정인 1·2차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가 희망 근로자(재입국)를 제외한 신규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서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면접과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현지 면접에는 영양군 계절근로자 담당팀과 베트남 화피엔면 인력 선발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선발 과정은 색맹 검사를 포함한 기초 체력 검사와 농작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기초 영농 테스트를 통해 농작업 부적격자를 1차로 선별한 뒤, 근무 의지와 태도, 성실성,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농가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교육청

해양산업 분야 교육사업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 강화와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 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 해양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해양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교육을 위해 ‘해양생태교육 리더학교’ 15개교를 신규 운영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